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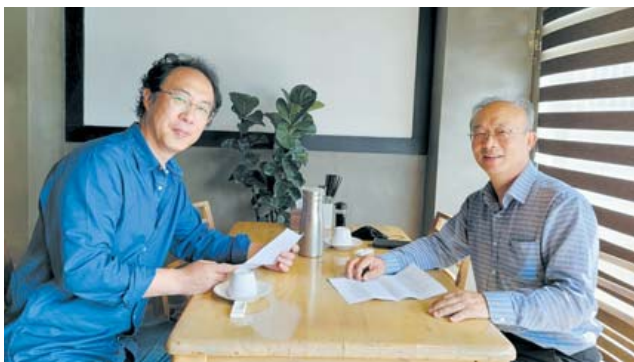
첨단 기술, 예술작품 접목...사람 내음나는 '레저블 시티'

(Legible City)



유럽 문화 도시 이야기

이승권 조선대 교수가 바라본 영국 브리스틀



이승권 교수(오른쪽)와 인터뷰 중인 필자.

도시의 가독성(Legibility)은 방문객이나 거주자 모두에게 편안함(Amenity)을 선사한다.

인간은 도시를 통해서 인류문명을 개척했지만 문명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까운 미래에 ICT와 결합한 스마트시티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유기적으로 작동해 모든 시민이 만족한 삶을 이야기하는 도시! 진정으로 기대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이다. 그러나 미래의 스마트시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도시는 기계문명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된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는 서로 다른 지역과 민족의 상상력이 담긴 다양성의 공간이다. 거부할 수 없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이상적인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레저블 시티(Legible City)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레저블 시티는 '가독성을 갖춘 도시'로 도시 구조와 공간



영국 런던 서쪽에 위치한 브리스틀은 도시 곳곳에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양식의 건물들을 간직한 항구도시다.

'가독성=편안함·감동' 따스한 숨결 넘치는 길따라 '소확행' 때료 용·복합 시대정신·다양한 스토리 녹아든 공간 '문화도시' 본질

에 대한 지표표를 통해서 완성된다.

첨단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도시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은 도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빌리티(Imageability)는 레저블 시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표를 만들고 도시의 맥락과 유동성을 확보해 도시의 서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미래의 스마트시티는 차가운 기계적 도시가 아니라 따스한 인간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가 될 것이다.

1996년 세계 최초로 표지판 정비를 시작한 브리스틀은 레저블 시티의 모델로 평가받는 곳이다.

이 도시는 '브리스틀 레저블 시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부실한 안내표시판이 도시를 망친다고 판단하고 예술작품과 접목한 웨이파인딩(Wayfinding) 시스템을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

도시를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일은 기계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도시의 생명력이 도시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지표와 도로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이것이 문화도시에서 워커블 스트리트(Walkable Street)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이유다.

주민과 방문객들이 도시의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견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레저블 시티이다.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브리스틀은 대영제국의 영광과 패배를 동시에 맞본 도시다. 긴 역사의 흔적이 담긴 도시 뒷골목 명소를 찾아다니며 소확행을 즐기는 것은 도시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다. 브리스틀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의 명소들은 아날로그만의 감성으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레저블 시티에 적용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도시를 더 잘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ICT 기반의 모바일 지도는 완벽한 길 안내 역할을 한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도시 공간의 구조화는 삭막했던 도시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도시를 활기차게 만든다.



브리스틀 템플미드역 외부(왼쪽)와 내부 전경.



브리스틀은 아티스트뱅크시(Banksy)의 고향인 만큼 곳곳에서 멋진 그래피티를 만날 수 있다. 사진은 카페 센트럴.

그곳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거나 허름한 건물이어도 상관이 없다. 걷고 싶은 거리, 편안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생기 넘치는 거리를 갖춘 스마트시티는 ICT를 활용한 레저블 시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브리스틀과 같은 레저블 시티는 도시의 생산자와 공급자, 원주민과 이주민,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생의 도시이다.

이곳에는 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함께 한다.

도시가 행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역사를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높여줄 문화예술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스마트 시티는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의 서사가 첨단 ICT와 접목돼 모두에게 편안함과 감동을 주는 도시가 인문적 스마트 시티다.

이러한 곳에는 유구한 역사가 없어도,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없어도, 길이 좁아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광장이 있고, 걷고 즐길 수 있는 자연과 문화가 있다면, 그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 사랑받는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 존재하는 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인문도시가 아닐까?

이승권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도시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미래도시에서 벌어질 도시공간의 재편은 ICT 기반의 혁신기술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일상이 전개되는 미래도시는 공간의 집중과 확산이라는 패러다임의 반복으로 완성될 것이다.

기술만능주의 시대의 인류가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도시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또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도시인 스마트 시티를 향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도시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

첨단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의 본능을 일깨우는 걷고 싶은 도시, 인간의 서사성을 자극하는 읽고 싶은 도시, 용·복합의 시대정신이 담긴 공간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문화도시의 모습을 생각하며...

〈최철·조선대 문화학과 초빙 교수〉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스크 공장도가판매

도·소매 환영 OEM 환영

덴탈

장당 100원

* 2000장 미만
택배비 소비자 부담

KF-94

장당 250원

직접공장생산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시 북구 서하로(오치동)254 문의: **080-374-5046**

제조 공장이 필요하십니까?

땅값의 2~3억 원만 있으시면~

토지면적 3,300㎡
(구, 1,000평)이하
자금없이 건축하여
드립니다.

무상 보조금(10~20억) 상담해 드립니다.
서천, 영광, 태안 산업단지 입주하실 분

네이버 카페 **산단입주.com** 검색

자연과생명부동산컨설팅 **080-374-5046**
광주 북구 서하로 254

당뇨, 고혈압, 변비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비그라올라

비그라올라 2개월 분 ₩98,000원

직접 체험하십시오!
**7일분 조건없이 택배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5,000 소비자 선불부담)

드신 후 60분 후 체크하십시오!

자연과생명연구소 **전국 취급점 및 대리점 모집**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유니온)
체험분은 문자로만 주문받습니다 010-4624-5046